

HOME > 전국 > 호남/제주

농어촌공사 원주, 청년 농업인과 '소통협의체 간담회' 머리 맞대

✎ 김미성 기자 | Ⓞ 승인 2026.03.27 16:07

농지지원 제도 개선 및 산업 발전 방향 논의



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는 27일 강원도 평창에서 청년 농업인과 지역별 소통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. /사진-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

[투어코리아=김미성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는 27일 강원도 평창에서 농지지원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과 지역별 소통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번 간담회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.

참석자들은 청년 농업인이 영농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공유하고, 미래 지속 가능한 농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했다.

원주지사는 농지은행의 '맞춤형농지지원사업' 및 '농지임대수탁사업'을 통해 원주, 영월, 평창, 정선 지역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.

특히 선임대후매도사업,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초기 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남기두 원주지사는 "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밑거름 삼아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

김미성 기자

저작권자 © 투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